

## 담임목사 목회서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27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노회 소속 목사로서,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교단의 결정에 대한 당회와 노회의 입장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은퇴 장로님들, 향존직들, 총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당회와 노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 전해지는 다른 정보들로 인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렇게 성도님들께 목회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우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문답형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질문

**어떤 분들은 양심의 자유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 대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나다 장로교(PCC)안에서 양심과 행동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우리 교회와 노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견해를 지키면서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 특별 위원회(Rainbow Communion)의 동의안(Recommendation)은 어디까지나 동의안이며, 헌법이 명시한 양심의 자유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교단에 속한 노회와 교회는 위의 동의안을 얼마든지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2015년에 캐나다 장로교단보다 더 강력한 동성애 관련 헌법 개정을 한 미국 장로교(PCUSA)안에서도 지금까지 7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단으로부터 단 한 건의 강요와 압력도 없었으며, 한인 교회 안에서 단 한 건의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8년에 같은 헌법 개정을 한 캐나다 연합 교단에 속한 한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한인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교리와 전통적 견해에 대해서 조금도 침해 받지 않고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양심의 자유가 개신교 신학에서 핵심적인 가치이며 장로교 정치 원리의 제1조에 해당되기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보장될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노회의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입니다.

### 2.질문

**우리 교회와 노회가 남은 자로서 교단 안에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생각인가요?**

### 대답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단에 남아 있는 이유는 양심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남아 있는 이유는 우리 한인 교회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한인 교회들이 주류 교회와 동화되지도 말고, 그렇다고 도피하지도 말고, 그 속에서 중심을 잡고 캐나다 교회와 사회 전체에 살아있는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교단 안에 남아 있는 40% 이상의 복음적인 교회들과 연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총회에서 법안에 성경적 견해가 앞에 나오고, 양심의 자유가 강하게 들어간 것도 우리 한인 교회와 복음적인 교회들이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교단의 개혁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본 한인 교회는 매년 교단에 보냈던 Presbyterian Sharing을 올해부터 내지 않으면서 교단을 향해서 경고와 거리 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교회 예산을 더해서 우리 교단과 캐나다 교회, 한인 교회가 더 성경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사업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미 교단 안에 있는 복음주의 그룹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10월에는 교단 안의 복음주의 그룹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앞으로 교단 안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단안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교회, 전체 캐나다 교회가 더 성경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운동을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안에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세우는 큰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른 교회를 먹이는 교회, 많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감당할 것입니다.

### 3.질문

**어떤 교회들은 우리의 신앙적 입장과 다른 결정을 한 교단을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남는 선택을 했습니까?**

### 대답

노회안에 교단을 나가는 선택을 할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런 교회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많은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 내린 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회 그리고 우리 노회는 분열보다 일치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교회가 세상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세상을 떠나서 고립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7:15)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 되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11)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한국 장로교의 역사를 보면 자신들과 다른 신앙적 입장이 결정될 때마다 입장 차이를 내세워서 교단이 분열되는 일이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 예수교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300개 이상의 교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분열보다는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힘을 합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다음 세대들과 함께 캐나다 교회들을 깨우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로 이주한 우리 한인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2015년에 미국 장로교가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에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400개 한인 교회 가운데 20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였습니다. 왜 이 때에 95%의 한인 교회들이 교단에 남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양심의 자유와 사명이 분명하기에 분열보다는 일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미국 장로교 안의 한인 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건강하게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노회는 분열보다는 일치를, 도피보다는 참여를 선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 4.질문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와 교단에 남는 교회가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가요?**

### 대답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노회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단이 분명하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였기에, 교단 안에서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 있기에 분열보다는 일치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입장이 달라서 교단에 남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달라서 다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교단을 나가는 분들은 나가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남는 분들은 남아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차이가 아니라, 사명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6월 22일에 전체 노회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에 기도로 함께 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21년 8월 1일  
본한인교회 담임목사 고영민 드림